

또 하나의 노벨상을 바라며

전일광장

정상연

전남과대학 겸임교수
문화학박사



날이 꽤 추워졌다. 얼굴에 스치는 바람이 예사롭지가 않다. 낙엽이 지기도 전에 다가올 겨울이 걱정될 만큼 몸도 마음도 춥다. 아마도 각자가 처한 형편이나 시간들이 유난히 편치 않기에 그러할 것이다. 자꾸 옷깃을 여미게 되고 손은 호주머니로 향한다.

올해도 변함없이 수험생들은 입시 한 파라는 징크스를 뒤로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전력을 다했다. 고등학교 3년을, 아니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년 그 이상의 긴 시간을 오로지 수능 일, 그 하루를 위해 달려온 것이다. 수험생 당사자뿐만 아니라 뒷바라지하는 학부모들까지,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대학 입시라는 관문을 향해 질주해왔다.

안타까운 것은 개개인의 재능과 꿈꾸는 미래가 한 줄로 세우는 수능의 높다란 장벽에 가로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인생의 모든 계획이 수능일 하루에 결정될 것 같은 조바심에, 모든 교육적 논리와 가치관마저 혼란스러워질 수 있음이다. 영적 존재로서의 고귀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 순간 입시 서열에 뒤떨어져 서울로, 의·치대로 내몰리고 있는 비정상적인 오늘의 민낯이 걱정스러울 따름이

다. 우리는 타자와 구별되는 나만의 개성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모든 이가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될 수 없고, 옹고그름을 가름하는 판검사도 될 수 없는 법이다. 사람은 개인의 성격, 습관, 신념, 행동양식 등 여러 요소가 망라되어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특징과 개성을 지니고 있다. 개성은 내부적 특성과 외부적 표현의 조합이며 개인의 삶의 방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 최선의 모습으로 나다움을 찾아야 한다. 이 세상 누구와도 같지 않은 나만의 개성과 자긍심으로 현재의 내가 내일의 꿈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대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노벨문학상의 주인공 한강(1970~) 작가처럼.

1901년부터 시작된 노벨문학상의 수상자는 지금까지 한강을 포함해 121명이다. 그중 한강은 여성 작가로서는 역대 18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되었고 한국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라는 자랑스러운 타이틀을 달았다. 글을 쓴 지 꼭 30년 만에 이뤄낸 쾌거라고 한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40번째, 아시아에서 5번째로 노벨문학상을 배출한 나라가 되었다.

한강은 소설가 아버지를 둔 덕분에 글 쓰는 환경이 남들보다 더 좋았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어떤 인생사든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과 치열한 노력 없이는 얻어

지는 것이 없는 법이다. 서울을 가로질러 흐르는 한강만큼 분명 많은 눈물도 있었을 것이다. 그가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현실과 타협했었다면 오늘의 한강은 없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 교육시스템도 바뀌어야 할 때다. 학부모들의 기대치가 바뀌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뛰어넘어 우주를 넘나드는 시대가 되었다. 나의 개성으로, 나만의 특화된 글로벌 인재의 모습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물리학, 의학 등 다방면의 노벨상 수상자를 29명이나 배출했다. 중국의 노벨상도 8명이나 된다. 2000년 노벨평화상, 2024년 노벨문학상. 이제부터다. 미래를 선도하는 창발자가 되어보자. 그러한 문화를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자.

마지막으로 담담하고 품위 있는 한강의 소감문을 다시 읽어본다. "한편으로 이후 세대 개인적 삶의 고요에 대해 걱정해 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세심히 살피주신 마음들에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일상이 이전과 그리 달라지지 않기를 저는 믿고 바랍니다. 저는 제가 쓰는 글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사람이니,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작품으로 세상과 소통하기를 기대합니다.

社說

지역 현안사업 공사 수주기업이 없다니

계약 축소 등 방안 마련해야

KTX 광주 송정역 증축사업이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완공이 미뤄지고 있다.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최근 지역 현안사업들이 공사지연으로 차질이 우려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 호남고속철도 광주 송정역 증축공사 입찰 공고를 냈으나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유찰됐다.

공단은 이달 다시 4번째 입찰 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찾고 있지만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으로 그동안 사업비가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업체 선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이 사업은 올해 시공사를 선정할 뒤 내년 1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 착공도 불투명하다. 이 사업은 국비 450억 원을 투입해 송정역을 연면적 5700㎡에서 1만 900㎡로 배 가까이 증축하고 낡은 대합실, 승강장,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는 것이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부터

2단계 전체 8공구에 대한 업체 입찰 공고를 낸 가운데, 이 중 2개 공구(7·10공구)는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무려 5차례 유찰됐다. 사업비 재논의시 2029년 예정된 개통 시기는 1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는 총 20.046km 구간으로, 사업비는 1조 3228억원(국비 7937억·시비 5291억원)이다. 이처럼 광주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대형 공사가 지연되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송정역 하루 이용객은 1만 명이 넘고 평택-오송, 북복선-경전선-달빛내륙철도까지 개통하면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증축이 시급했다.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도 수차례 연기로 시민들의 불만만 폭주하고 있다.

지역 현안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게 사업비 책정과 공사 가능한 업체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계약을 축소하는 방안도 절실하다. 어렵게 얻은 기회를 살리지 못할 망정, 시간만 낭비해서는 안될 '지역 미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역소멸 '일자리'로 패러다임 바꾸어야

인구 유출 심각한 광주·전남

광주·전남지역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는 소식이다. 인구가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지방소멸과 함께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젊은 층을 위한 지역내 일자리와 문화와 교통 등 각종 도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제공한 '2024년 3분기(7~9월) 지역경제 동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 광주 1661명·전남 736명 등 총 2397명의 인구가 순유출됐다.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에 등지를 둔 전출인구가 광주·전남으로 이사 와서 전입 신고를 한 것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특히 광주의 경우 전체 순유출 인구 가운데 20~29세 청년층이 41.5%를 차지했고, 전남 또한 전체 순유출 인구 가운데 20~29세 연령이 6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자리가 없어 젊은 층이 떠나고 지역이 쪼그라드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20대 젊은 층이 지역을 떠나면 지방소멸은 당연하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은 전체의 파이가 줄어드는 것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두가지 특징 때문이다.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나마 남은 몇 안되는 지역의 인구마저 수도권 등 특정 지역으로 쏠리면 나머지 지역은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지역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윤석열 정부 들어 주춤하면서 지역소멸이라는 지역의 위기를 막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지역의 위기이면서 대한민국의 위기다.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은 지역에 희망이 없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물론이고 광주시와 전남도는 단순히 인구를 늘리려는 근시안적 대응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소멸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인구증가와 관련된 그 어떤 대책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수도권과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려는 도로와 철도망 등 SOC 확충도 필요하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걸그룹 '르세라핌'이 10일(현지시간) 영국 잉글랜드 맨체스터의 코옵 라이브(Co-op Live)에서 열린 MTV 유럽 뮤직 어워드(EMA)에서 공연하고 있다. K-팝 걸그룹 최초로 MTV EMA에서 공연한 르세라핌은 이날 신인 아티스트나 그룹에게 주어지는 '베스트 푸시'(Best Push) 상을 받았다.

AP/뉴시스

서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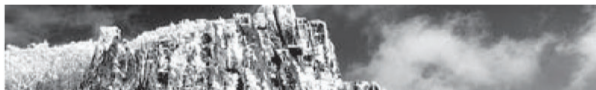
광주는 지난 10월10일을 기점으로 민주화의 도시라는 이명 이외에 하나가 더 추가됐다. 인문학 계열에서는 누구나 염지를 지켜 세워주는 '노벨문학상'의 도시가 바로 그것이다.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응모를 하는 것도 아니다. 한 작가의 작품이 쌓이고 그것을 읽고 누군가가 추천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 추천자는 세계의 석학 중에서도 특히나 문학적 감수성과 지성이 탁월한 사람들이다.

최소한 21세기 초반에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노벨문학상을 다른 곳도 아닌 광주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한강 작가가 받았다. 더욱이 그의 작품 '소년이 온다'는 광주의 가장 아프고도 웅혼한 이야기,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루고 있다.

자, 이 멋진 선물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강기정 광주시장도 같은 고민이었던 듯 하다. 지난달 노벨문학상 수상 축하를 위한 기자회견 당시 그의 표정은 기쁘면서도 난감해 보였다. 그에서는 '이 문학의 축복을 어떻게 해야 광주에 정착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이 역력했다.

이런 와중에 11일 광주시가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독서가로서는 꽤나 반가운 목록이 자리하고 있었다.



바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책 읽는 광주' 조성을 위해 '광주 시민 매년 1인 1책 읽기 문화'를 확산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서점 활성화, 자치구별 대표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 도서관-서점-광장 어디에서든 책과 친해지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138억원을 배정했다.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무언가 허전하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글을 쓴다는 것과 필연히 연결된다. 많이 읽는 이들은 당연하게도 쓰고 싶어하는 욕구를 마주할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책을 읽는 것만큼이나 쓸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배고프고 가난한 그러나 제2의 한강을 꿈꾸는 이들에게 광주가 먼저 길을 열어줘야 한다. 전국 어디서나 "광주로 가면 글을 쓸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는 파랑새를 풀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작가 지망생들이 모여 논의하고 토론할 때, 비로소 글 읽기가 모두에게 퍼진다. 쓸수 있어야 읽을 마음도 생긴다. 이 명제를 달성한 순간부터 광주의 색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될 것이다.

생각해보라. 젊은 소설가들의 배경에 '광주'가 나오는 찬란한 순간을.

도시를 바꾸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을 광주시가 유념했으면 한다.

노병하 취재1부 정치부장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